

보도시점 2025. 3. 13.(목) 16:00

배포 2025. 3. 13.(목) 10:00

이차전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신성장 4.0 민관협의회 개최
- ▶ 전기차 캐즘, 미국·EU 등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변화 및 경쟁력 분석
- ▶ 차세대 기술확보, 공급망 안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발전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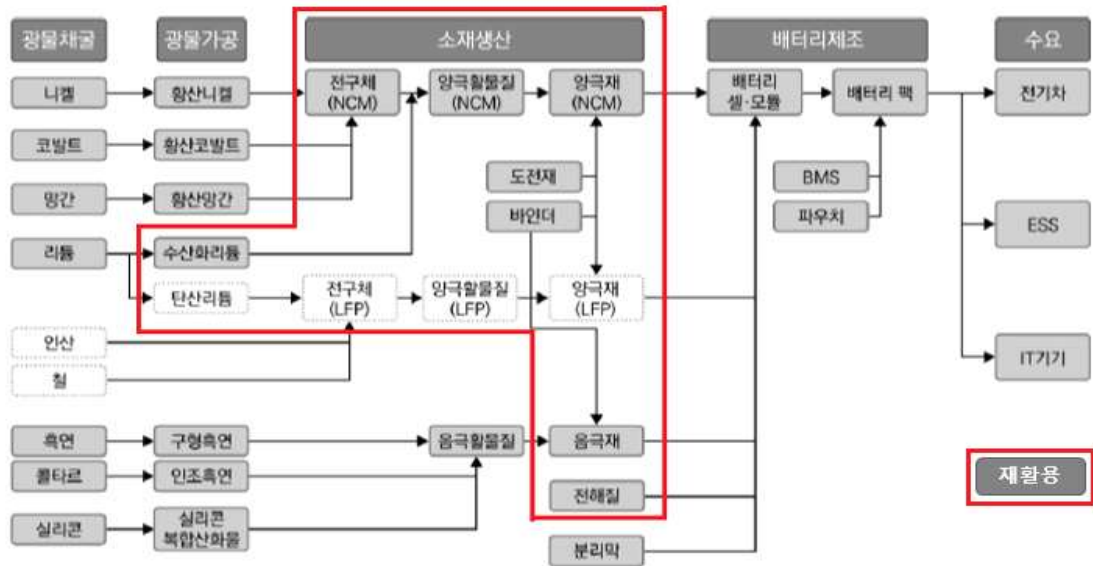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이하 추진단)은 3.13일(목),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도청, 산업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기업*과 민관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리튬 리튬포어스, 전구체 에코앤드림,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전해질 이피캠텍, 천보비엘에스, 테이프 데이팩스, 재활용 성일하이텍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의 EU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한국 배터리 점유율('24): 미국 49.5%, 유럽 50.8%) 하고 있으나, 핵심 광물(수산화리튬, 천연흑연 등) 및 소재(음극재 등)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향후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경감 및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배터리 산업 공급망 구조>



* : 금번 민관협의체 참석기업

** 그림 출처: 산업연구원(KIET)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완결 및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을 위해 '23.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간담회가 개최된 새만금 지역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공급망 내 전구체 등 핵심광물 가공 집적지 및 재활용 전초기지로서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현재 대주 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개 업체의 9.6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삼원계(NCM): 니켈, 코발트, 망간 / LFP: 리튬, 인산, 철 ** 그림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7.20.)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해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주)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하였다. (주)천보비엘에스는 '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품명: LiFSI) 양산화에 성공한 (주)천보의 자회사로 기존 대비 고출력, 고수명, 안정성이 높은 F전해질(LiFSI, 불소 Fluorine 포함)을 제조원가를 절반 이상 감축시키는 공법을 적용하여 양산하고 있다.

F전해질 생산공장을 둘러보면서 신제품 개발 및 공정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제를 통해 **이차전지 업계의 현황 및 이슈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업계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단장은 “전기차 캐즘,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므로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미래산업팀	책임자	팀 장	장혜정 (044-215-8880)
		담당자	사무관	도화선 (dohs@korea.kr)
	전라북도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이차전지반도체팀	책임자	팀 장	임다희 (063-280-2170)
		담당자	주무관	박성은 (starsilver@korea.kr)
담당 부서 (협조)	새만금청 신산업전략과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63-733-1360)
		책임자	사무관	김기완 (kkw973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easternsky@korea.kr)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배정한 (044-201-7384)
		담당자	사무관	남궁현 (namkung6@korea.kr)